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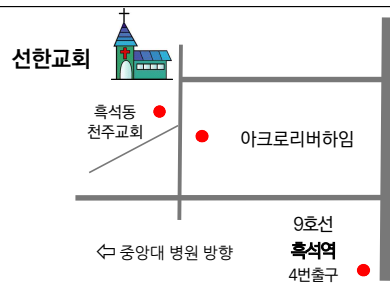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22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	독 문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찬	양 과 경 배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말	씀 봉 독	요한계시록 3장 1 ~ 6절
설	교	사데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롬10:14-21)

임춘배 목사

1. 운영위원회 모임

예배후 운영위원회 모임이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2. 예배 안내

1. 기간: 4월1(수)~4월12일(주일)
 2.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가정 영상예배)
 ※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3.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드림 (가정 영상예배)
3.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금주범위: 마태복음~사도행전]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5.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예수의 멍에를 지는 사람
찬송 :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통 513장) 본문 : 마태복음 11장 25~30절 말씀 :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교만한 이를 미워하는 분이란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약하고 무능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능력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의 공(功)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평소 자신의 약하고 무능함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어른과 아이가 아니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주 어린아이를 언급합니다. 어린 아이는 순수하고 사심(邪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거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의 전통만 너무 확고히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인기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짐을 주리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삶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고생스럽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짐만 예수님께 얹고 예수님의 멍에는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짐을 예배에 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지고 사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삶과 불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충분히 임하는 하나님의 삶을 소망하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사데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 3:1-6)
서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고 소아시아 7교회(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1. 사데교회의 상태 (1)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곱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1절) (2) 주님의 책망: ①‘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1절) ②‘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2절) (3) 주님의 권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3절) (4) 주님의 약속: ①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यो ②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5절) 2. 교훈 (1)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2)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3) 살아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결론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	날짜 : 3월 30일
찬양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본문	신명기 3:12~22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옥의 바산 왕국을 정복한 사실과 여러 왕국을 물리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지난 날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같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나라의 바산왕 옥과 싸우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의 싸움에 매우 두려움을 느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이길 수 없는 옥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과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긴 것은 그들에게 전쟁의 경험이나 전투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야 하는 고단함, 누가 우리를 이같은 고단함에서 쉼을 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내 힘만 의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나요?		
오늘의 기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성경공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율법
찬양과 기도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새 430/통 456)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대표하는 정서는 빠름과 격렬함입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패트릭 렌시오니는 「탁월한 CEO가 되기 위한 4가지 원칙」이란 책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텔레그래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 이념과 사명을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숙지시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절대 원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나칠 만큼 차분하게 한 발씩만 나아가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들을 따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경쟁사들을 이기고 착실하게 성장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느리지만 건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무엇보다 회사를 믿고 사랑합니다. 텔레그래프가 중시한 것은 설립 이념과 사명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숙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켜 행하면 인간이 생명을 얻는 중요하고도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힘든 세상일지라도 항상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절대 원칙으로 삼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신명기 4:1~14	
묵상포인트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에는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율법 준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편이 되고,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칭송받게 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변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권면하나요?(1~2절)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6절)	
적용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요? 오늘날 성도들이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날마다 묵상한 말씀을 실천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가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 지혜요 최고 지식임을 제 삶과 인격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화평을 이루는 자	날짜 : 4월 3일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신명기 2:16~25		
	오늘 본문에는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할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 족속과는 마찰을 원치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친히 이끄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나아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서와 롯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변경하시거나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 족속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형편에서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룰 때 우리 안에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을, 이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대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사시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시길 빕니다. 또한 오늘 한 날을 사시면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받는 훈련이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는 훈련이 될 지언정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연단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언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수 있나요? 2. 그렇게 지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삼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기도의 본질	날짜 : 3월 31일
찬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문	신명기 3:23~29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공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단 하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젃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바라며,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이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들어주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단지 필요하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지혜의 근본	날짜 : 4월 1일
찬양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본문	신명기 4:25~31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명심하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형상화의 유혹에 빠지면 더 황홀한 시각적 형상에 사로잡혀 우상숭배의 미혹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형상화의 부패과 우상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의 우상과 비교하는 위치로 전락시키게 되는 데 이는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려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거나 타협하려고 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구할 때 그 은혜가 우상이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형상이나 우상이라도 제 마음 속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하나님의 형상	날짜 : 4월 2일
찬양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본문	신명기 4:15~24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믿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감행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혹은, 시내산)에서 활활타는 불길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산에 구름과 흑암이 덮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앞장세워 보내어 하나님께 대신 듣고 그 들은 바를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도 생생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경이로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로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은 그 사실을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말합니다. “깊이 삼가다”라는 뜻은 “명심하여 아주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그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척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 하려고 할까요?		
오늘의 기도	제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드러내시고, 만나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